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준비 점검

군, 대회 TF팀 현안사업보고회 개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 현안사업보고회가 28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황정수 군수를 비롯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총괄운영, 홍보지원, 환경시설지원, 친절·위생·먹거리지원 분야)과 조직위 관계자들, 그리고 무주군 관내 기관·사회단체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대한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에 대해 공유하고 분야별 세부 실행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무주군관광협의회를 비롯한 관내 11개 기관·단체와의 협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외에도 △태권도원 수련관(보조경기장)신축과 △태권도 명예의 전당(태권전, 명인관)건립, △태권도원 진입도로 위험도로 개선, △태권도원 주변 지역 행위 제한 해제 등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태권도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현안들을 점검했다.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TF팀에서는 올 7월까지 태권도원 진입도로 인도 설치에 대한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에 착수할 예정(2017년 3월 완공목표)이며, 무주읍 무주 IC에서 설천면 태권도원 구간까지 과약한 교통표지판 정비 대상 현황을 기반으로 일제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일반음식점 개선사업(입식, 개방형 주방, 화장실 개보수 등) 마무리와 자원봉사 이카데미 운영, 군민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는데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또한 대회 기간 중 공연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발굴·운영(무주전통놀이, 전통 공예품 전시 등)하는 내용과 무주투어 연계 상품을 홍보하는 내용, 꽃길조성과 먹거리 운영시설 지

원, 의료지원, 먹거리 부스,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을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황 군수는 "대회가 일 년에 남은 시점에서 대회 개최지 군민으로서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제대로 각인시키고 행정은 물론, 기관사회단체와 군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대회성공과 더불어 태권도원 홍보, 지역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전 세계 206개국 2천 1백여 명의 선수와 임원들이 참가할 것으로 알려진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세계태권도연맹 주최 / 2017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주관)는 2017년 6월 22일에서 30일까지 9일 간 태권도원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8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고 총 2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2백 여 명의 고용유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완주군 녹색쉼터 명상 숲·꿈동산 조성

삼례동초·고산중 청소년 정서놀이터로 활용

완주군이 청소년 정서놀이터로 주목 받고 있는 '명상 숲 및 꿈동산 조성'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명상 숲 및 꿈동산 조성사업은 총 1억 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삼례동초등학교와 고산중학교에 청소년을 위한 녹색쉼터 '명상 숲 및 꿈동산'을 조성하였으며, 29일 오전 11시 고산중학교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특히 고산중학교는 운동장 주변 명상 숲과 학교 뒷산의 방치된 산길을

꿈동산으로 조성하여 완주 청소년의 놀이·체험 공간으로 재탄생하여, 청소년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힐링명상소로 주목받을 전망이다.

명상 숲 및 꿈동산 조성은 녹지가 부족한 학교 내 다양한 수종의 나무와 꽃을 심어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친환경적인 학습 공간 조성, 지역주민을 위한 녹색쉼터 제공을 추진되고 있다.

완주읍 완주군수는 "앞으로도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예

산을 투입해 숲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다"며 "조성된 숲이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정서함양과 힐링의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은 올해 전복체육과 앞 도로변 가로수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km구간 260주를 식재하였으며,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내 도시숲 조성사업도 대대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숲 교육이 청소년의 불안심리를 5.2%, 공격성을 6.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숲에서의 활동이 심리적 안정을 향상시키고 부정적 정서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완주군, 시설고추·감 편이장비 2종 19대 보급

농작업 효율 증가 기대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도움

완주군은 여성과 노인도 편하게 농작업이 가능한 시설고추 및 감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에 보급한 편이장비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감연구회 27농가와 용진고추작목반 20농가에게 농작업시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편이장비 2종 19대를 보급했다.

농작업 환경 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촌인구의 고령화 및 여성화라는 농업노동 부담 경감과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각 작목의 농작업 여건 파악 후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이뤄진다.

용진고추작목반에 보급한 초미립자 방제기는 시설하우스 내에서의 병해충 방제작업과정에서 오는 농약중독을 예방하고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여성농업인 혼자서도 손쉽게 방제 할 수 있도록 개선된 편이장비이



완주군은 시설고추 및 감 편이장비를 보급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다.

특히, 기존에 분리되어 있어 번거로웠던 콤포레서 장비를 분체와 일체형으로 만들고, 브레이크가 달린 회전바퀴를 사용해 누구나 쉽게 이동 가능하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노즐 막힘을 해결하기 위해 노즐 내에 칩을 내장함으로써 전혀 막히지 않도록 개선했다.

완주감연구회는 감 재배시 가장 큰 애로사항인 경사로에서 수확작업 및 수확물 운반 작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캐도식 동력운반차 9대를 보급함으로써 농업노동에 따른 과도한 부담을 완화시키고, 농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농업기술센터(소장 김중옥)은 "해마다 편이장비 보급으로 농작업 효율이 30%이상 증가하고 근골격계 질환이 예방되고 있어, 농업인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한 농작업 환경속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보건소, 만성질환 고혈압·당뇨병 관리 강화

등록관리사업 운영위 개최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28일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운영위원회는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운영위원에게 위촉장

을 수여 하였으며, 운영위원으로는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장, 진안군 보건소장, 진안군의료원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진안군의사회장, 진안약사회장, 지역신문기자 등 총 7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회의는 2016년도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의 소개와 합병증관리를 위한 안과검진 및 만성콩팥병 검진, 고혈압·당뇨병 상설교육장 운영, 고혈압·당뇨병 예방교육과 캠페

인을 통한 만성질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업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승호 소장은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 HAPPY 365 군민 한마당

내일 전통문화의 집에서

2016 무주군 HAPPY 365 군민한마당이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전통문화의 집(군청 민원실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전래놀이 한마당이 펼쳐질 이번 강연은 사단법인 놀이하는 사람들 이수정 상임이사(국립민속박물관 전래놀이 부문 강사)가 진행할 예정으로, '마음을 열어 주는 손뼉치기', '이야기가 있는 동그란 딱지놀이', '우리골목 딱지왕을 찾아라' 등 가족끼리, 이웃끼리, 마을을 찾는 관광객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전래놀이들이 시연된다.

이수정 강사는 "전래놀이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아무런 경계없이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최고의 마법"이라며 "그 마법이 마을로 가는 축제를 개최하는 마을을 비롯한 무주군 6개 읍면 전체로 퍼져 무주에서는 즐겁다는 생각, 무주에 가면 재미있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래



놀이들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사·전문가 초청 Happy 365 문화행사는 "교육과 문화가 있는 무주" 실현을 위해 지난해부터 무주군이 민선 6기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영화감독 정재은,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김소희 선수 등을 초청해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생태관광매니저 양성 교육

진안군은 28일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 지원센터 주관 생태마을(은천·원동촌·원강정마을) 주민 30여명을 대상으로 생태관광매니저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라북도 생태관광육성 정책을 설명하고, 생태관광의 방향성과 이해,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생태관광의 수익 모델 등을 설명하고 기존 행정 중심의 일방향적인 사업 추진이 아닌 행정과 주민의 상호협력력을 통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된 전문교육이다.

특히 생태관광매니저 양성 교육은 마을주민을 생태관광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초·중·고급과정으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주민 스스로의 역량이 강화되어 생태관광 전문가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과 주민 설명회, 견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 지오파크(Geo-Park)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은 국가지질공원이 될 미산 남부와 생태마을(은천·원동촌·원강정) 중심으로 10년간 73억을 투입하여 마이산과 지질생태자원을 기반으로 한 지형형 생태관광지를 조성하고, 주변의 생태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하여 체험·체육·교육형 생태관광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경찰서는 완주 미음사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주경찰-완주 미음사랑병원, 정신질환자 보호 '맞손'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완주군 소안면 소재하고 있는 미음사랑병원과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등 효율적인 보호조치 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정신질환자들로 인한 잔인한 강력사건 발생이 사회의 이슈가 되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잠재적 불안요인으로 대두,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것으로 무주경찰서는 이날 협약으로 유관기관 간 유

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 정신질환자의 사건 발생 시 현장에서 응급성과 위험성을 전문가와 함께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3일간의 신속한 응급입원의 조치로,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빠른 개인이 정신질환자의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호를 구현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마을만들기 포럼

장수군마을만들기 포럼이 28일 오후 2시 김윤섭 장수부군수를 비롯해 오재만 장수군의회장, 관내 관련 인사, 전문가, 지역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한누리전당 소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사)장수지역활력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포럼은 장수군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과 마을공동체 내부적 발전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중간지원조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방안'을 주제로 이원석 참총

은마을연구소으로부터 '농촌지역 정책 이해 및 추진방향' 이현민 전라북도마을만들기센터장의 '중간지원조직 필요성 및 역할' 신해숙 진안군 원원장마을이장의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운영사례' 발표가 진행됐다.

또한 이승형 박사를 좌장으로 전문가가 지정토론을 통해 마을 사업의 현황 분석과 마을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사)지역활력센터는 2016년 생생마을만들기사업에 공모해 사업비 5천만원으로 중간지원조직지원 대상지로 확정 된 바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국립관리소

장수군 노인 장애인복지관

교육·문화·복지사업 추진

장수군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김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고 농어촌희망재단이 주관하는 '2016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2016년 5월부터 11월 까지 7개월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 된다.

2016년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사업은 농촌의 교육·문화·복지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주민 중심의 공동체 육성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며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공동체 교육, 역량강화교육, 문화여가지원, 정서지원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학계, 공공의 전문가의 위촉 등 민관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농촌지역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교육·문화·복지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김진 관장은 "공동체 의식의 함양으로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육성 및 전국 농어촌 마을에 농촌형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나라사랑 안보교육 실시

진안군은 28일 공직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안보교육을 3층 강당에서 실시했다.

이날 강사는 미래사회 교육원 소속 유현주 강사(탈북민)로 '우리 삶과 행복'을 주제로 2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최근 북한의 위협과 국내·외적인 테러위협 등 그 어느 때보다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공직자의 투철한 국가관 확립과 소명의식 함양을 높이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 참석한 공직자들은 북한 현실에 대해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통일의 필요성과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

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김홍세)는 목재제품의 품질표시 강화를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산 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질단속을 이달부터 올 년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규격·품질기준을 제정·고시(국립산림과학원)한 합판, 목재펠릿 등 총 14개 품목이 단속 대상으로, 목재제품은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산림청은 최근 목재제품의 관심과 이용이 확대되고 새로운 품목이 제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품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기존 11개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을 1개의 고시로 통합했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목재품질 관리 제도가 정착되면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국산목재제품의 품질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소방서, 전복 농기계 구조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28일 오전 10시경 장계면 계남면 화인리 서울농원에서 농기계 전복 사고 구조 활동을 벌였다.

이번 사고는 이모씨(71)가 사과농장에 농약을 살포하던 중 운전 부주의로 농약 살포기가 경사로로 전복되어 운전자가 살포기 밑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조대원과 구급대원은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에어백기구를 사용하여 농약 살포기에서 요구조자를 구조하여 응급조치를 받았으며, 큰 부상 없이 장수의료원으로 이송되어 치료중이다.

김현수 장계119안전센터장은 더운 여름철 농사일로 체력소모가 많아 잠깐의 부주의가 사고로 이어지므로 농기계 사용시 적절한 휴식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